

들꽃편지 632

2021.9.23. 추분호

<http://cyw.pe.kr> 햇별같은집

정서와 문화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각 나라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온 민족 정서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그 정서의 영향을 대물림하죠.

1. 일본은 수치문화 -일본의 민족 정서는 수치(羞恥)문화입니다.

일본인은 수치(羞恥)스러운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섬나라라 싸우다 지는 쪽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갑(甲)에게 을(乙)은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입버릇처럼 '스미마센(미안합니다)'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기 싫다는 뜻이지 진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인에게 사과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절대로 사과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2. 중국은 무치문화 -중국의 민족 정서는 무치(無恥)문화입니다.

중국인은 무치합니다. 무치는 무식(無識)과 다른 개념입니다. 수 많은 족속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살아야 하는 대륙이기 때문에 풍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중구난방 엉망진창 도리지꼬땡입니다. 강력한 군주 한 사람의 말이 그냥 법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常識)이 무용지물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지막지(無知莫知)한 나라입니다.

3. 한국은 눈치문화 -한국의 민족 정서는 눈치(眼治)문화입니다.

땅이 좁은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방법은 '눈치'입니다. 힘 있는 자의 기분을 알아서 읽어내고 처신을 해야 했던 과거 '계급사회'의 영향입니다. 지금도 상사의 눈치를 잘 살펴야 승진에 유리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심코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하면서 암암리에 눈치를 학습시킵니다.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눈치는 영어로도 nunchi 라고 쓰는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초능력입니다. ©최용우



♥동북 3국의 민족 정서를 살펴본 최용우 올립니다.



하늘에 새긴 꿈이 가득한 별 하나.

A star full of engraved dreams in the sky.

空に刻んだ夢いっぱい星一つ。

Ein Stern voller eingravierter Träume am Himmel.

一顆滿懷夢想的星星刻在天空。

O stea plină de vise gravate pe cer.

ดวงดาวที่เต็มไปด้วยความฝันถูกจารึกอยู่บนท้องฟ้า

전각 ©예장 이준우

개와 자유

종일, 바우를 풀어놓았다.
땅에 코를 박고 자는 모습은
묶여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달리 보인다.
내가 가까이 가면
얼른 몸을 비켜 도망을 간다.
묶이는 게 싫다는 말썸이시다.
나도 묶는 게 싫다.
그런데 왜 묶어 놓는가?
내가 자유롭게 못해서다.

인간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 그 자체이신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23

지난해 권사님댁 밭 700여평을 무상 임대받아 농사를 지었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그 넓은 밭에서 들깨 두 말 밖에 거두질 못하였습니다.
두 말을 권사님댁 허름한 창고에 넣어두고
오랜만에 기름을 짜려고 찾아가니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깨가 다 없어졌어. 우리 것도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순간 화가 올라왔습니다.
“창고에 넣어 놨는데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 권사님이 팔아먹었겠지.”
마음속으로 구시렁거렸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창고에 들어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피더니
들깨 두 말이 든 자루와 권사님 댁의 들깨 자루까지 들고나왔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창고에 너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서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럴까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왜 저는 순간 떠오르지 않고 화부터 나오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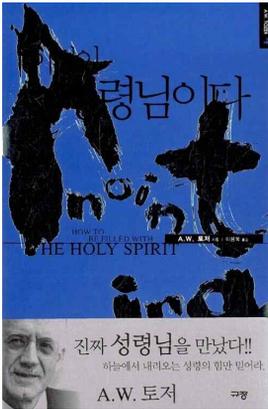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기름 짜서 주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자.”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4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22쪽 11,000원 규장 2005

세상이 주는 힘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힘을 믿어라!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성령님의 불사람이 되라!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의 내 영적인 상황을 수습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곤고한 영혼이었구나... 몇번씩 곱씹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토저 목사님은 한 세대로 앞서 가시면서 지금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을 꼭 집어서 파 해치셨는지... 정말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헤깔리기 쉬운 건, 성령님의 역사보다, 교회 분위기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작은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님이 그런 모습과 환경을 좋아하실까? 지금 우리들은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나?

이 책에서 보면,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른 어떤 훈련이나, 집회나, 행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

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왜? 성경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번째,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다른 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심하면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 이시듯,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대접을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할 때입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는 곳에 오십니다. 말씀을 높이는 곳에 오십니다.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대가를 충분히 치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나, 악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모여도 세상과 양다리 걸친 곳에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세상과 양다리 걸쳐놓고 주님의 역사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



A. W. 토저 '마이티 시리즈'

(A.W. TOZER Mighty Series)

토저는 현대의 교회가 물량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순결성을 포기하는 듯한 자세를 보일 때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언제나 선지자의 음성을 발하였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교회의 세속화를 준열히 책망했던 예레미야 처럼, 토저도 시대에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교회의 순정성(純正性)을 파수하기 위해 '강력한(Mighty)' 말씀을 선포했다.

(규장에서 토저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A. W. 토저 마이티(Mighty) 시리즈'로 출간한 책 30권을 순서대로 읽고 독후감을 쓰는 중입니다.-편집자)

하루의 찬양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한 번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밀한 기도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독을 곁으며 산책을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용우 제5시집<찬양하라 내영혼아>中



[댓글]

향기 /생각해 보면 삶이 찬양이 아닌 것이 없네요

이호진 /아멘.....^^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69.마르쿠스 바로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

신들 사이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신들을 양파 고르듯 고를 수 있다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신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겨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170.바로가 말하는 선택받은 신들의 실태

바로는 이렇게 선택받은 신들을 책 한 권으로 간추려 놓았다. 12명은 남신이고 8명은 여신으로 모두 20명이다. 이러한 신들이 선택은 이들이 세계에서 위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일까? 그들이 세상에서 해내는 역할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모르겠다.

171.신들이 선택되는 기준의 애매함

선택받은 20명의 신들의 면면을 보면 선택받지 않은 다른 신들보다 그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만약 어리석은 대중들의 판단에 따라 신들이 선택되었다면 신들은 어리석은 대중들 보다는도 더 못한 것이 될 것이며, 반대로 몇몇 지혜로운 이들이 신들을 구분했다면 그들의 지혜는 지혜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72.선택받은 신들일수록 오점이 많다

명성과 영애를 좇는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신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 신들이 운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신들이 선택받은 일은 명예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거지와 왕자가 같은 급이라고 선택받았다면 왕자는 선택받은 것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다.

173.자연적 신학의 깊은 뜻

바로가 말하는 자연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혼까지는 다다랐지만 영혼을 만든 참된 하나님에게는 이르지 못했으니까) 바로가 언급한 자연적 신학은 주로 물질적 본성에만 관계하는 민간신학에 불과하다. (계속)

성령을 따라 살려면 3



25. 회개 하려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요16:8)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사고나 병이 나서 주인공이 “내가 왜? 내가 무얼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 왜 하필 나야?”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罪)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값을 대신 치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또 열심히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짓겠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예배시간에 ‘회개기도’ 순서가 딱 1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분도 무척 길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할 것이 1분도 안 될 만큼 잘 살았다면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생각도 안 나고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죄, 살인, 욕심, 우상숭배, 간음, 음행, 음란, 호색, 더러운 것, 분냄, 사나움, 분쟁, 험담, 비방, 소문, 참소(고자질), 이간질, 당파심(당짓기, 파벌), 분열, 분파 시기, 질투, 투기, 방탕, 술취함, 게으름, 탐욕, 쾌락추구, 사기, 거짓말, 미련, 어리석음(우애), 무지, 무절제, 조급함, 원망,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함, 배반, 배약, 배신, 선을 악

으로 값음, 무정, 무자비, 부모거역, 자녀를 노엽게 한 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 경건하지 못한 믿음과 행동, 위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이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제목의 일부입니다. (6970)

26.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8:13)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쉬운성경)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고전15:31) 목숨은 하나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는단 말입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아 고맙다. 베개야 고맙다. 보일러야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저녁에 잘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매일 일어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생명 하나’로 보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몸과 혼)’은 단단한 껍질이며 ‘영, 영혼’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파쇄되기 전에는 영이 밖으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력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영은 기를 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부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죽어야 합니다. 살아서 뱀처럼 대가리 쳐들어 봤자 짝대기로 두들겨 맞거나 할 뿐!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6971)

27.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유행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 판사람같이 새로워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믿음성경)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 가치 기준, 시대정신,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 뜨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열고 정보를 얻습니다.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 십 수명이 죽었는데, 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오늘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중요한 뉴스라며 ‘고양이 10마리를 버려 죽게 한 사람’이 떡 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세상 신’은 환경문제, 식량문제, 인권문제 같은 건 관심 끄고 고양이 소식이나 먹방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은근슬쩍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이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며 아까운 시간을 하염없이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신홍종교인 ‘핸드폰교’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핸드폰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며 핸드폰을 경배하게 됩니다. (6972)

28.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업적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지만, 솔로몬에게는 한가지가 없었으니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다윗에게는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충성’이란 주인을 위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마25:21)이며 ‘충성이란 죽은 썩 치고 죽을힘 다하여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정말로 충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개’를 한 마리 키워보십시오. 그 개가 주인을 따르는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엉뚱한 곳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에게 충성해야지 어떤 사람이나(주로 담임 목회자), 어떤 조직이나(주로 교회), 권력(주로 돈 있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 내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고전 4: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사람 소리 듣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결산의 날에 큰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마25:21) (6973)

29.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현대어성경 로마서8:8)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 장악하느냐, 성령의 생각이 장악하느냐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귀신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차지하기 위한 마음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의식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을 마음에 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신을 품을 때 그 안에서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은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느냐(품느냐)로부터 비롯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6974)

30.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식의 소망(희망, 바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아 희망, 즉 구원론적 소망입니다.

만약 제가 “타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단이라고 낙인찍어서 저를 기독교에서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 말은 제가 마치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로마서 15장에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시18:49, 신 32:43, 시117:1, 사11:10)

그렇게 바울의 소망대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직 구원은 선민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6975)

31.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6:15) 헬라파 유대인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다가 공회원들에 의해 불잡혀와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동요함이 없이 얼굴이 오히려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한 것은 마치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듯이 너무나 온유하고 평강에 넘쳤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령한 권능에 사로잡혀 거룩한 빛이 그 얼굴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험악한 사람 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스테반은 지나 깨나 항상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만 소망하고 묵상했으며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 죽음 앞에서도 건들면 그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품고 있는지는 얼굴에 드러 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얼굴에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 천 사의 얼굴이 됩니다. 나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위선자, 열성 종교분 자, 선행만 강조하는 도덕군자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면의 더러운 실체를 감추기 위해 외모, 재물, 명예, 권세 등으로 위장한 모습 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하고, 참으로 추하고 더럽습니다. 부디 저 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말을 주시어서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추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976)

32. 천사의 섬김을 받으려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1:14) 기독교에서는 ‘수호천사’에 대해 설교하는 분들도 없고 천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다른 아브라함 종교에는 모두 수호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사람을 돕는 열두 수호천사를 함께 보내십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에 천사들이 아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서 “하이고야~! 천사같다 천사같아...” 하면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천사를 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더 이상 도울 일이 없는 천사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천사는 열심히 집을 짓는데 어떤 천사는 놀고 있어서 물어보니 “저 천사는 주인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상급의 재료가 잘 올라와 집을 짓고 있고, 저는 주인이 게을러서 집 지을 상급이 안 올라와 재료가 없어서 슬퍼하며 쉬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리는’이 맞고 천사의 입장에서는 ‘섬기는’이 맞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인간을 돕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인격적인(인간과 관련있는) 피조물이 세 가지 있는데 인간, 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돕는 열두 수호천사 가운데 지금 내 곁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6977)

33.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5:5-6)

1.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욥22:29) 여기서 겸손한 자는 “눈이 낮은 사람”이다.

2.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2:3)

3.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자신의 자신감을 율법적 의무가 아닌 구원자에게 둔다.

4.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라고 했다.
 5.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6.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7.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참을 수 있다.
 8.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9. 겸손한 사람은 지금이 항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10.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가장 낮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가장 별볼일 없는 일에 집중한다. “낮은 데 처하며”(롬 12:16)
- 팀 챌리스(Tim Challies)의 <겸손한 사람의 열가지 특징>을 요약했습니다. (6978)

34.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 관용(寬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관용이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빌 2:3),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빌2:14)과 대조됩니다. 관용을 ‘너그러움’, ‘친절’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2:21-23)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란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습니다. 끈기 있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아량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증오와 적의에 찬 사나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아량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곧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문밖에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6979)

35.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용서’를 빼면 기독교가 아니죠.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어떤 설교자는 또 그것을 $70 \times 7 = 490$ 번이라고 친절하게 계산까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이지 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성을 한다거나 배상을 한다거나 어떤 조건을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ogg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아니,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무조건 용서를 해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否認)하면’(마16:24, 눅9:23) 죄가 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고 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그에 대한 훨씬 큰 보상이 다른 이들을 통해 옵니다.

한 성서연구 모임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용서해야 할 일은 없고 용서 받아야 될 일만 많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6980)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5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1.9월 현재 7000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1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사진:최용우)

두물머리 가족여행

속초로 가자, 영덕으로 가자, 서해안 섬으로 가자... 의견이 분분했지만 올해 가족 여행은 가능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정한 곳이 '양평' 두물머리와 용문사 계곡으로 가기로 했다.

밝은이는 서울에서 바로 두물머리 양수역으로 오고, 우리는 아침 6시 30분에 서울로 올라가서 8시 40분에 양수역에 도착 밝은이를 차에 태웠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이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여 '두물머리'인데 일단 유명한 '연하도그'부터 사 먹었다.

더운 날씨에 많이 걷는 것은 무리라 인증사진을 찍고 용문계곡에 찜밥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계곡에 물이 없어서 발 담그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양수리로 나와 나인블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서울 밝은이 집으로 갔다. 예휴, 밝은이네 집으로 휴가를 가다니...

밝은이네 집에서 한숨 자고 출발하여 집에 오니 밤 9시이다. 휴가 끝!

오늘의 예배

팔월 한낮 고양이도 더운지 나무 그늘에 숨어서 늘어져 있다. 오늘도 오전 9시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지구촌 사람들의 삶이 완전 바뀌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옛날

에는 귀신이 들렸다는니 악령의 장난이라는니 했었는데, 과학이 그것은 ‘미생물’의 작용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 요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인간 문명이 미생물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의 역학관계를 인간은 파악하지 못한다. 미생물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명 메커니즘 싸움의 깊이는 아득하다.... 대충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거의 마칠 때쯤 갑자기 뱃속의 미생물 작용으로 급동 신호가 온 아내가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버려서 예배를 주섬주섬 마칠 수밖에 없었다.ㅏㅏㅏ



유혹

꼭대기 집 할아버지가 대평장에서 고추를 한 자루 사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올라가신다. 오늘도 변함없이 6km 걷기 운동을 마친 나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힘없이 터덜터덜 뒤따라간다.

음식 양을 먹는 등 마는 등 팍 줄이고 저염식으로 먹으면서 드디어 몸무게가 81이 된 것은 몇십년만에 일어난 기적이다.

저녁, 일이 끝나는 좋은이를 마중나갔다가 ‘버거킹’ 앞에서 아기 상어 버거 세트가 새로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얼쩡거리는데, 갑자기 버거킹 자동문이 좌-악! 열린다. 얼른 들어오라는 것 같아 얼른 들어가고 말았다.

며칠 동안 버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른거렸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버거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아기상어 시리즈 아빠버거, 엄마버거, 아기버거 세트를 샀다. 예잇! 81kg 된 기념으로 그냥 먹고 다시 내일부터 참지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밤 11시 넘어 아빠상어, 엄마상어, 아기 상어가 머리를 맞대고 햄버거를 먹은 다음 날 세 식구가 얼굴 퉁퉁 붓고,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다. 현미밥과 풀만 먹었더니 그새 식구들 몸이 정화가 되어 불량식품이 몸 안에 들어오니 빨리 내보내려고 한다. 허 - 먹을 때 입은 즐거운데 그 다음날엔 몸이 고생이다.

오늘은 운동코스를 새로 개척했다. 건물생심(見物生心)이라 보면 먹고 싶어지니까 아예 상가도 없고 인적이 드문 용수천 건너편 천변길로 걷기 운동을 나갔다. 포장되지 않은 땅바닥이고, 멀리 한두리대교가 보이고, 강가엔 온통 푸르름만 가득해서 안구 정화가 확실하게 되었다. 길바닥이 비포장이라 흙길을 걸을 수 있고, 가끔 고라니가 뛰어가고, 산딸기도 하나씩 따먹을 수 있어 시골길 분위기가 난다.

앞으로 이 길은 나의 단골 산책길이다.



딱 내 스파일~

아내가 인터넷에서 '소쿠리 보리밥' 집이라는 맛집을 찾았다면서 가자고 한다. 한적한 길가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는데 마당에 차들이 가득한 것으로 봐서 제법 알려진 집인가 보다.

메뉴는 두 세가지로 간단하다. 소쿠리 정식을 주문했다. 먼저 소쿠리가 나왔는데 콩나물, 무, 호박 데침이 한 그릇에 담겨 있고, 무생채, 사라다, 취나물, 오이무침, 김, 된장, 미역무침이 한 소쿠리에 빙 둘러 담겨있다. 잠시 후에 수육과 쌈채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우렁된장과 밥과 국이 나왔다.

반찬도 대부분 주변 밭에서 직접 얻은 반찬이고 된장도 직접 띄워담근 된장 맛이 난다. 상에 마트, 공장 반찬이 없어서 마음에 들었다. 수육으로 쌈을 몇 점 먹다가 반찬을 하나씩 넣고 비웠다.

밥상 구성이 딱 내 스파일~ 이다.



백신 1차 접종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백신을 동네 의원
에 가서 맞았다. 예약 서버가 다운될 정
도로 서로 먼저 하려고 난리칠 때 “아니,
이게 뭐라고 저렇게 극성을 떨까...” 해서
나는 일부러 예약을 맨 나중에 했더니 접
종도 맨 마지막 날 하게 되었다.

9시 예약인데 30분 전에 갔다. 오늘 예약자 명단에 보니 내가 1번째 예약자이다.
뭘, 그냥 간단하게 모기 한방 쏘이고 왔다. 먼저 1, 2차를 다 맞은 아내가 보더니
밴드도 안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주사 맞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왜 나는
저저 동그란 밴드 안 붙여 줬지? 동네 의원이라서 밴드가 없었나?

아내가 주사를 맞고 왔을 때 무심코 밴드를 눌렀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도 주
사 맞고 오기만 해봐... 스위치 막 눌러줄터니까...” 했었는데...

예구, 그래서 스위치 누르려고 아내가 밴드를 먼저 찾았구나.^^



백신접종 2일째

코로나 백신접종 2일째가 진짜 아프다
고 한다. 먼저 백신을 맞은 아내가 2일째
되던 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누
워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
나 아프까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주사 맞은 팔이 약간
빠근했다. 점심때쯤 되니 한 15km 정도
등산하고 온 날 몸 상태처럼 나른나른 해
지는가 싶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아무렇지도 않음. 머리로 안 아프고 타이레놀도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먹을 일이 없었음.

뭔가 좀 증상이 있어야 땡땡이도 치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달라고 할텐데 특별한 증상 없이 백신접종 2일째가 쓱 지나가 버리니 살짝 허무
한 마음도.

어쨌든 내 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가 잘 생성되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세종 코스트코

평소에는 집에서 출발하여 코스트코 건물을 한 바퀴 뱅 돌고 오면 하루 6km 걷기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고 운동을 할 수는 없어 버스를 타고 코스트코에 가서 아내가 만들어준 회원카드를 꺼내어 차! 보여주고 입장을 하면

그때부터 코스트코 내부를 돌며 운동을 한다. 코스트코가 얼마나 넓은지 쉬지 않고 골목골목을 순서대로 두어 바퀴 걷다 보면 6km 걷기 목표를 달성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훈훈한 코스트코가 나에게 좋은 실내 운동장이다.

그런데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작년에 전 세계 730개 코스트코 매장 중에 세종 코스트코의 매출이 1위라고 나온다. 2위 양재, 3위 광명으로 1,2,3위가 모두 한국 코스트코이다. 음... 세종 코스트코가 그런 곳인 줄 미처 몰랐었네.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점심을 혼자 먹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막 나의 뇌 뉴런 신경이 기름 자글자글 흐르는 삼겹살 같은 것을 입으로 넣어 달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 냉장고를 뒤져 봤더니 뭔가 돼지고기 비슷한 광석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었다.

밭에 가서 깻잎도 10장을 따 오고 찜장도 한 손갈 퍼 놓고 뭘지는 모르지만 냉장고에서 발굴한 광석 덩어리를 후라이팬에 올렸다. 그런데 어째 내가 상상하던 그런 모양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고기일까? 갈수록 햄버거 패티 모양이 된다. 삼겹살은?

아마 다른 용도로 쓰는 고기인 모양인데 갈아서 올려놓은 고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깻잎에 싸서 찜장 발라 입에 넣었다. 나의 뇌는 “이게 아니야, 아니라고... 잉잉” 뭐, 어쩌라고... (저녁때 돌아온 아내가 그건 냉면 위에 올리는 고명이라고 한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515회 비학산212

올해는 장마가 금방 끝나서 좋아했더니 가을 장마인지 벌써 8일째 빗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비가 오락가락하여 멀리 갈 수 없어 잠깐 비 개인 틈에 뒷산 비학산에 올랐다. 운무인지 물안개인지 사방이 자욱하여 마치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 같다. 올해는 다른 곡식들은 시원찮은데 빈 절 마당의 대추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알알이 잘 여물어간다.



중간에 ‘중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래 발산리에 새로 절을 짓고 산속의 절은 폐사 되었다. 이제 스님들도 불편한 곳에서는 안 살려고 한다. 올라갈 때마다 절이 급격히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마당에 서 있는 부처님은 다 떠난 빈 절에서 빗마다 혼자 안 무서울까? 왜 부처님은 안 모시고 내려갔는지. 2021.8.30

▲제516회 비학산213

일출봉까지 5km를 왕복하면서 양 옆을 살피는데 달개비가 많이 피어있었다. 달개비는 그늘이 살짝 드리워지며 습한 기운이 조금 도는 곳이라면 우리나라 어디에 서라도 흔하게 피는 꽃이다.



그동안 200번 넘게 왕복한 길인데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색 없는 산길을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이 산에 오를 때마다 꽃씨를 뿌렸더라면 지금 이 산길은 얼마나 많은 꽃이 피어났을까? 전국에 흔하고 흔한 ‘일출봉’이라는 이름 대신 ‘야화산(野花山)’이라 이름을 붙이고 온갖 꽃이 피는 산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그냥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산을 올랐다.

지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달개비꽃이 많으니 ‘달개비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하다. 너무 평범한 꽃인가? 2021.9.9

▲제517회 갑하산(495m대전)

아내가 아이들이 사용하던 방을 정리하고 안방에 있는 아내의 짐을 아이들 방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아내 방 세팅작업에 들어갔다. 무거운 짐 옮길 때 부를 테니 꼼짝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에 오도 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간간히 불려가 힘센 돌쇠가 되었다.



오늘 오르려고 계획했던 산이 있었는데 포기했다. 점심을 먹고 아내의 방 정리가 대충 끝난 것 같아서 산에 가도 되냐고 했더니 “2시간 내에서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산에 가세요.”

그런 산이 어디 있...기는 있지. 갑하산은 우산봉까지 쭉-욱 능선을 타야 하는데 오늘은 갑하산에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가을 하늘이 푸르고 푸르렀다. 2시간 안에 등산을 마치느라 막 서둘렀더니 1시간 30분 걸렸다. 2021.9.18

▲제518회 비학산214

비학산 올라가는 중간에 증광사라는 절이 있었다. 산 모양이 마치 주발을 얹어 놓은 모양의 산이라 증광사 아래 마을 이름이 '발산리(鉢山里)'이다.



금남면사무소 홈페이지 마을 소개에 보면, 태종(太宗)에 의한 태자의 난(亂)때 신천 강씨인 신덕왕후 강씨(康氏)의 일족이 화를 입게 되어 이곳으로 피난하여 숨어 살았는데, 그 후 후손들이 거둬 대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는 뒷산에 '증광사(重光寺)'란 절을 세우게 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계산해도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이 살았는데,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잘 견뎌오던 절이 하필 이 시대에 문을 닫아서 건물들이 수풀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저 공간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을까? 2021.9.19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추분(秋分)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에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영켜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힙니다. 추분의 들녘에 서면 벼가 익어가는데 그 냄새를 한자말로 향(香)이라고 합니다. 벼 화(禾) 자와 날 일(日) 자가 합해진 글자이지요. 한여름 뜨거운 해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벼는 그 안에 진한 향기를 잉태합니다.

들판의 익어가는 수수와 조, 벼들은 뜨거운 햇볕, 천둥과 큰비의 나날을 견뎌 저마다 겸손의 고개를 숙입니다. 내공을 쌓은 사람이 머리가 무거워져 고개를 숙이는 것과 벼가 수많은 비바람의 세월을 견뎌 머리가 수그러드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머리는 옆으로 흔들면 안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합니다.

추분은 중용과 내면의 향기와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파란 가을 하늘에 가장 어울리는 꽃은 무엇보다도 코스모스가 제격입니다. 허리가 기늘은 코스모스는 작은 바람에도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춤을 춥니다. 한 곳으로 머리를 맞대고 마치 춤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명랑하고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내가 어디든 가을 나들이를 나가자고 하네요.

매일 <아침편지>를 띄우시는 물맷돌 목사님께서 사용을 허락하신 사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일출봉에 햇볕이 짹하오> 207쪽(올컬러) 13600원 -9월 17일 출간!

52.일상의 행복 207쪽(올컬러) 13600원 -7월 8일 출간

51.예수님의 말씀들 듣는 산행 534쪽(올컬러) 31800원- 5월 6일 출간

50.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아침밥2 (399쪽 17300원) -4월13일 출간

49.바보일기 396쪽 23900원 컬러) -2월 25일 출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37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1.8월 재정결산

2021년 8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의 이진우
장기갑 조인훈 조인훈 조인훈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7분이 1,024,587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1.9월23일 현재 704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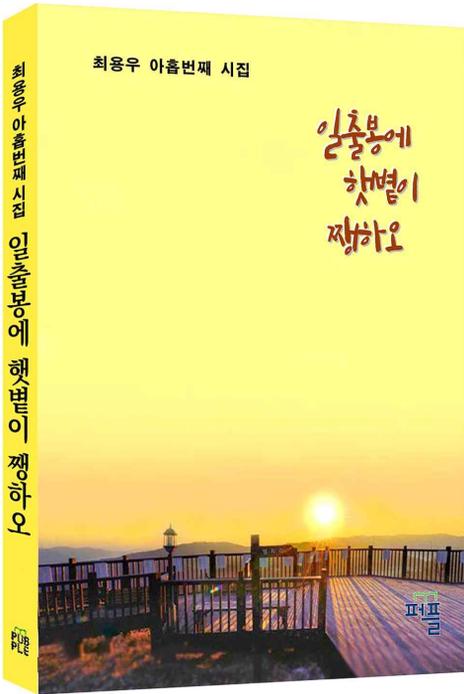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3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6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인터넷,복방선교,선교사,아동 각1곳씩)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새로 나온 책

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

일출봉에 햇별이 짱하오
최동우 지음
210쪽 13,600원(컬러)
교보문고 퍼플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쪽티마을
계룡산에서 흘러내린 용수천이 금강과 이어지는 포구마을
그래서 계룡산의 용(龍)과 포구(浦口)의 포를 따서 용포리.
그리고 역적이 나와 한때 마을이 쪽대밭이 되어 버려져서 쪽만 자라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쪽티'인 슬픈 마을에 내가 산다. 우리 마을 뒷산은 학을 닮은 산 비학산(飛鶴山)이다. 지금도 해마다 학이 날아와 등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2006년 가을에 이곳으로 이사 와서 뒷산에 올라가 보았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일출봉'(228m)까지 집에서부터 정확하게 왕복 5km였다. 등산로도 희미하고 잡풀을 헤치고 올라갔던 산을 잊고 있었는데, 충남 연기군이었던 이곳에 행정복합-세종시가 새로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일출봉 종합개발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일꾼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를 베고 꽃을 심고 데크를 만들어서 근사한 비학산 일출봉 공원을 만들었다. 그 즈음부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르면서 한번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詩)를 썼다. 이 시집은 2006.10.28.일부터 2019.6.1.까지 13년 동안 194회 등산을 하면서 쓴 194편의 시를 모았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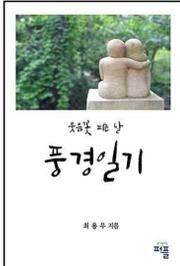
햇빛일기

힌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보송보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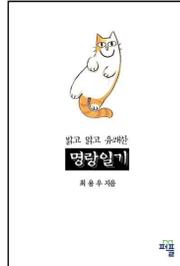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갈 모음
14,200원 396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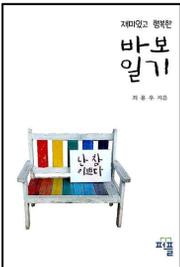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람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퍼플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요. 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15,200원 396쪽 퍼플



바보일기

나는 명칭하고 명칭하여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 라던 노재(老子)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빛나고 똑똑했던 그 많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퍼플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짐을 나와 갈 곳 없어 방황하며 공원의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시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별같은집>에서 발행합니다.

*햇별같은집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기독교평정서(햇별같은집)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2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